

# 대한양계협회소식



## 본회 조류인플루엔자 비상 대책본부 가동 토요일도 오후까지 상황대기

본회는 지난 10일부터 양계협회 사무실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동회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14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예보를 발령하고, 11월부터 4개월동안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해 운영계획에 있는 것과 연계하여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양계인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 비상대책본부는 양계협회 최준구 회장을 본부장으로 각 도지회, 시군지부 및 시대책위원회를 두어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나가며, 전무를 실장으로 두고 대회협력 및 위원회 운영반(담당 김동진 홍보팀장), 농가홍보반(담당 조종수 업무지원팀장), 소비대책반(담당 황일수 자조금사업팀장), 수급조절반(담당 이보균 경영지도팀장) 등 4개 반으로 나누어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토요일에도 오후 5시까지 2인 1조로 상

황대기하고 있으며, 만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경우 농림부 직원 파견은 물론 체계적인 본부 상황실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 닭·오리 관련단체 긴급 조류인플루엔자 공동대처 회장단 방송사 항의방문·방송자제 요청키로



본회는 지난 13일과 18일 본회 회의실에서 양계관련단체 긴급 조류인플루엔자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최근 시 언론 과잉 보도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13일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보발령을 앞두고 양계산물은 안심해도 된다는 내용을 함께 발표해 줄 것을 건의키로 하였으며, 18일 회의에서는 국내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매일 조류인플루엔자 보도를 다루고 있어 양계 산물 소비가 급락하고 있으므로 본회를 비롯한 양계관련단체장들이 KBS, MBC, SBS, YTN 방송사를 방문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보도중지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과대보도 자제 요청” 방송국 항의방문 KBS, MBC, SBS, YTN 등 방문



본회를 비롯한 양계관련 단체장들은 지난 21일 KBS, MBC, SBS, YTN을 방문하여 각 방송사별 보도국장(경제부장)을 만나 과대 보도 자제를 공식 요청하였다. 이같은 방문은 지난 18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과잉보도에 따른 긴급 공동대책마련 회의에서 방문키로 결의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가급적 보도를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현재 유통되는 양계산물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열 조리 안전하다는 내용조차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류독감’이라는 명

칭을 ‘조류인플루엔자로’ 바꿔줄 것과 동남아 등 후진국 사례 보도를 자제하고,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동향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도해야 할 경우 소비자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자료배경화면을 절대 사용하지 말고 안전성 위주의 내용을 꼭 병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각 방송사에서는 필요이상의 보도는 자제하고, 향후 공식명칭을 ‘조류인플루엔자’로 통일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농가 입장을 전적으로 이해함에 따라 최근 위축되어 있는 가금 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1918년 5000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H1N1)가 현재의 조류인플루엔자(H5N1)와 유전자형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하고, 오도로 시작된 각 언론사의 지나친 경쟁보도는 본회의 수차례 보도자제 요청에도 방영은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양계산물의 소비는 이미 상당부분 감소하였으며, 내년 봄까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농가에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 육계의무자조금 대의원 선거 실시 전 선거구 순조로운 투표진행

육계의무자조금 선거가 지난 24일 전복과 충북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총 76개 선거구 중 74개 선거구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10월 4일까지 후보등록 결과 홍성(3)과 김해(1)지역에서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전체 150명 대의원중 146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하였고, 투표가 진행된 첫



날 현재 중주지역이 투표자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당선자는 31일 최종 발표가 날 예정이다.

### 축산물소비축진등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견서 제출

본회는 지난달 축산물소비축진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농림부에 제출하였다.

의견서에서 본회는 아래 별첨과 같이 배합사료업체를 산란계자조금 거출기관으로 지정하는데 따른 개정사유와 부화장에서 자조금을 거출하기 어려운 사유를 밝혔다. 또한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가축육종·개량을 체계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함에 자조활동자금의 용도에 가축육종·개량 사항을 신설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산란계자조금활동자금사업을 시행함에 앞서 배합사료 생산업체를 자금 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고, 자금 거출이 시작될 경우 적극 협조키로 동의서를 제출한 회사는 지난 10월 21일 기준하여 서울사료, 서부사료, 경축, CJ, 흥성사료, 한우리사료, 대한제당,

고려산업, 한일사료가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D사료, S사료, N사료가 동의서를 제출할 뜻을 전달하여 왔다.

### [배합사료업체를 산란계자조금 거출기관으로 지정하는데 따른 개정사유]

#### □ 배합사료 업체를 거출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의 효과

1. 대부분의 산란계는 배합사료를 섭취해야하기 때문에 무임승차차 발생 가능성 배제
2. 산란계사료에 한정하여 자조금을 거출하기 때문에 실제 달걀을 생산하는 계군만 자조금을 낼 수 있는 합리적인 거출방안
3. 자조금사업으로 인하여 소비가 증가할 경우 달걀생산량 증가에 비례한 배합사료 생산량 증가로 업계공통 발전 기대
4. 사료거래내역을 본사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으므로 대리점 및 OEM사료 관리 용이 등

#### □ 부화장에서 자조금을 거출하기 어려운 사유

1. 실용계농장 강제환우 실시 유·무에 따른 농가별 자금 거출횟수 차이
  - 산란실용계 농가 사정에 따라 강제환우를 실시하는 농가와 하지 않는 농가가 있음
  - 이경우 강제환우 실시농가와 미실시 농가간 병아리 입식횟수는 약 1.5~2회의 차이를 보임
  - 따라서 강제환우를 실시하지 않는 농가는 실시농가보다 약1.5~2회 정도의 자조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부작용 발생
2. 병아리 입추 후에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인한 폐사
  - 일반적으로 입추시기(병아리)에 다소 많은 폐사를 보임
  - 사고(질병, 화재, 천재 등)로 인한 전수 폐사로 이어질 경우 자조금만 납부하고 실제 수익은 없는 경우 발생
    - 사고발생시 자조금은 반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의 불명확 및 기간경과 등으로 사실상 반환에 어려움 따름
3. 병아리 외상거래로 인한 대손 발생시 부화장 부담으로 귀착 가능
  - 대다수의 농가에서는 병아리 대금을 외상 또는 어음으로 결제하고 있음. 따라서 결제상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부화장 부담으로 귀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부화장 부담으로 귀착될 경우 산란실용계 1수가 약 300개의 달걀을 생산하는 것으로 볼 때 실용계 농가는 달걀 생산 개당 자조금을 나눠서 부담하면 되지만 부화장에서는 300개 분량의 자조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4. 중추 유통으로 인한 거출훈선 초래

- 상당수의 병아리는 중추 전문농장으로 분양됨.
- 중추농장의 경우 산란전까지 사육후 산란계농장으로 판매하는 형태임.  
따라서 비용만 발생하고 실제 달걀 판매로 인한 수익은 없는 단계임.
- 특히 중추 사육이후 각 산란계 농장에 또다시 분양되기 때문에 현황을 또다시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름.
- 따라서 중추농장에 분양되는 병아리에 대해서는 자조금납부 주체를 정하기 어려움.

**전국 채란인 대회**

**친환경 및 양계업 등록제 적극 참여 결의**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포천 반월아트홀과 산정호수 한화리조트에서 전국 300여명의 채란인이 모인 가운데 전국채란인대회가 분회 주최와 포천채란지부(지부장 오세울)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농림부, 농협중앙회, 포천시청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첫째날 5일에는 포천시 반월아트홀에서 채란인대회 기념행사 및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기념행사에서 김선웅 채란분과위원장이 대회사를, 최준구 분회 회장이 격려사를, 박윤국 포

천시장, 최홍근 한국계란유통협회장이 축사를 하였고, 오세울 포천채란지부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내빈 인사말에 이어 이천채란지부 이덕선 총무가 채란인 대표로 양계업 등록제 동참·양계자조금사업 적극 참여·강제환우를 삼간다는 채란인 결의를 낭독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조병임 농림부 축산경영과 사무관이 정부의 양계산업 정책방향 및 양계업 등록제 조기 추진방안, 송창선 건국대 교수가 닭뉴모바이러스 감염증의 원인과 대책을, 이상호 산골농장 대표가 환경친화적인 양계산업의 구축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기념행사와 세미나를 마친 채란인들은 저녁식사를 겸한 채란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다음날 6일에는 채란인 건강증진 등산대회가 있었고, 채란산업 발전방안 및 현안 문제에 관하여 김선웅 위원장 주재 하에 토론이 있었다.

**종계분과위원회**

**종계인 대회 무기한 연기**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연중)는 지난 12일 분회 회의실에서 10월 월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았던 원종계 관련 자료를 설명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세

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참석위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 이 자료는 계속 발표키로 하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육계 자조금사업에 따른 협의회 종발기금조성 및 미납금 모금방법에 대해 협의가 있었으며,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과잉 보도와 관련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다루어졌다. 육계자조금사업과 관련해서는 협조를 하되 선거비용건과 관련해서는 종계인들이 대의원에 출마하는 비율이 적은 관계로 배정된 금액을 전액 지불한다는데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종발협 기금은 사용처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모금을 한다면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보였다.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는 각 방송사들의 과잉보도로 업계가 어려워지고 있어 방송국을 찾아가 방송을 자체해 줄 것과 철새가 주요 감염경로라면 철새도래지를 폐쇄하고 인천 등 사료곡물 하역장의 텃새들도 철저히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한편 10월 이후 갖기로 했던 종계부화인 대회는 조류인플루엔자 관계로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 육계분과위원회 조류인플루엔자 대처 촉구 집회 개최키로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재성)가 지난 19일 대전농업기술원에서 9월 월례회를 개최하였다. 위원들은 조류인플루엔자와 자조금대의원 선거에 관하여 중점 논의하였다.

언론사의 조류인플루엔자 보도로 토종닭은 출하가 중단된 상태이고, 전체 닭고기 소비가 감소



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언론에 대한 육계분과 차원의 강력한 항의 내용을 성명서로 만들어 전문지와 각 기관지 및 언론사에 배포키로 하고 서울에서 육계농가 집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대의원 선거는 육계자조금사업에 중대한 사안이므로 대의원 농가별 선거비용 부담과 선거 홍보에 좀더 힘써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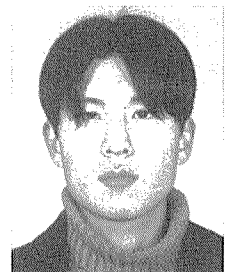
당면 현안 사안으로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세유 입추·출하가 어려운 농가가 있으므로 지역별로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 경력 및 신입직원 채용 경영지도팀에 김재홍 대리, 이남희 씨, 검정팀에 박수영 씨, 홍보팀에 장성영 씨

본회는 지난달 협회를 이끌어갈 경력 및 신입



▲ 김재홍 대리



▲ 박수영 씨



▲ 장성영 씨



▲ 이남희 씨

직원을 채용하였다. 경력직원은 본회 대구경북 지회에서 사무장으로 일해온 김재홍 씨를 과장 대리로 임명하였으며, 신입직원으로 신구대학교 자원동물산업과 졸업예정인 박수영 씨, 건국대학교 동물생산환경학과 졸업예정인 이남희 씨, 충남대학교 동물자원생명과학과 졸업예정인 장성영 씨를 각각 채용하였다. 김재홍 대리와 이남희씨는 경영지도팀에, 박수영 씨는 검정팀에, 장성영 씨는 홍보팀에서 각각 근무하게 된다.

### 본회 신동헌 전무, 김종준 과장, 조영훈 대리 의원면직

그동안 본회에서 근무해온 신동헌 전무, 김종준 과장, 조영훈 대리가 지난달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 면직되었다.

방송국 PD출신인 신동헌 전무는 지난해 3월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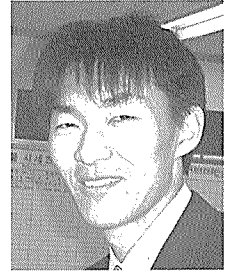


▲ 신동헌 전무



▲ 김종준 과장

터 전무를 맡으면서 조류 인플루엔자로 어려움을 겪어온 양계농가를 살리기 위해 방송국 등을 돌며, 닭고기와 계란의 소비활성화에 큰 역할을 기했을 뿐 아니라 협회의 재정을 늘리는데 큰 기여



▲ 조영훈 대리

를 하였으며, 김종준 과장은 10여년 동안 홍보팀에 근무하면서 월간양계 편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질병업무, 박람회 업무 등 협회 및 양계인의 권익에 큰 기여를 하였고, 조영훈 대리는 4년동안 경영지도팀에 근무하면서 홈페이지 관리, DB구축 등 회원 서비스에 노력해 왔다.

### 회장동정



◀ 최준구 회장

- 10/5~6 축산업등록제 추진을 위한 2005 전국채란인대회
- 10/10 경력직원 임용장 수여
- 10/12 10월 중계부화분과
- 10/13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언론보도 자제촉구 대책회의
- 10/15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
- 10/17~24(7박 8일) 동유럽 3개국 농협장학회 임원 해외연수
- 10/24~28 각 선구별(시군) 축협 육계자조금 대의원 선거위원회
- 10/25 농림부 주재 시관련 긴급회의
- 10/27 긴급 회장단(위원장) 회의
- 10/28 2005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 개막식